

교회 책자 교정 규칙

Writing and Editing Style Guide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 책자 교정 규칙

발행일 2011년 2월 20일

개정일 2015년 10월 1일

지은이 서울중앙교회 문서선교부

발행처 영생의말씀사

발행인 이영순

등록일 1996년 3월 11일

등록번호 제 1072-36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305번길 37

전화 031) 424-0693, 070-7121-1261

팩스 031) 424-0193

www.jbch.org (생명의말씀선교회)

book.jbch.org (영생의말씀사)

목차

머리말

제1장 교정

1. 교정의 의미 06
2. 교정 기호 06

제2장 일반적인 교정 규칙

1. 용어 11
2. 띄어쓰기 20
3. 문장부호 31
4. 헛갈리는 표현들 50
5. 외래어 표기법 54

제3장 교회 관련 교정 규칙

1. 성경 인용 58
2. 띄어쓰기 60
3. 어휘 선택 62

머리말

서울중앙교회 문서선교부에서는 지난 2011년에 《교회 책자 교정 규칙》 초판을 발행했습니다. 격월로 발간하는 신앙지 〈생명의빛〉을 비롯해, 단행본과 소책자 시리즈 등 교회 안의 다양한 출판물에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교정 규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교정 규칙에 근거하여 도서 편집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회 출판물의 편집 수준과 콘텐츠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초판이 발행되고 만 4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말의 어문 규정은 큰 틀에서는 바뀐 것이 없으나 언중(言衆)의 변화를 반영하여 맞춤법과 용어 등에서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책자 교정 규칙》에 이러한 변화 요소를 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책자를 교정할 때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교회 책자 교정 규칙》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이 ‘문서로 땅 끝까지, 성도를 하나 되게’라는 문서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도합니다.

2015년 9월 9일
문서선교부

제1장

교정

제1장

교정

1. 교정의 의미

교정이란 교정쇄와 원고를 대조하여 오자, 오식(誤植), 배열, 색 따위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 **교열**: 문서나 원고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며 검열하는 것.

2. 교정 기호

기호	의미	교정 전	교정 후
✓	띄어쓰기	온라인 오프라인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	붙이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	삭제하기	오늘은 기쁜방학	오늘은 방학
└┘	줄 바꾸기	편집합니다. 그리고	편집합니다. 그리고

	줄 잇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삽입하기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수정하기		컴퓨터 1:1 참석 지도
	자리 바꾸기		컴퓨터 참석 교육
	들여쓰기		하늘은 노력하는 이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내어쓰기		하늘은 노력하는 이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줄 삽입하기		온라인 오프라인 컴퓨터 교육
	원래대로 두기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
	글자 바로하기		APPLE





## 제2장

### 일반적인 교정 규칙

## 제2장

---

### 일반적인 교정 규칙

- 1) 일반적인 교정은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2)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1988년에 제정된 현행 어문 규정은 크게 네 가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로 구성되어 있다.
- 3)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에서 확인한다.
- 4) 교정 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용어

### 1) 9품사

#### ① 명사

사람의 이름이나 구체적,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사람, 이순신, 것, 자유 등

#### ② 대명사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예** 나, 누구, 이것, 여기 등

#### ③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예** 하나, 대여섯, 첫째, 스무째 등

#### ④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읽다, 먹다, 가다, 달리다 등

#### ⑤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예 좋다, 맛있다, 착하다, 빠르다 등

## ⑥ 관형사

문장 속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예 현, 옛, 한, 온갖 등

## ⑦ 부사

문장 속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예 매우, 바로, 반짝반짝, 곧 등

## ⑧ 감탄사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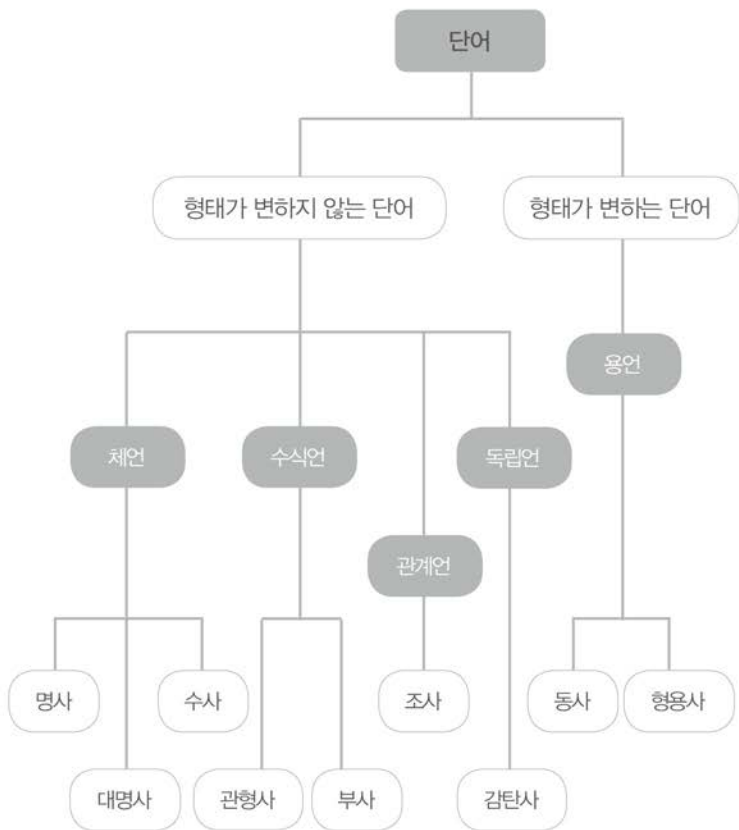
예 하하, 아이고, 아차, 음 등

## ⑨ 조사

주로 체언의 뒤에 붙어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예 가, 은, 부터, 까지 등

※ 단어의 갈래



## 2) 문장성분

### ① 주어(누가, 무엇이)

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성분.

예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가) / 무지개가 아름답다. (무엇이)

### ② 서술어(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문장성분.

예 형이 책을 읽는다. (어찌하다) / 민지가 귀엽다. (어떠하다)  
/ 영수는 학생이다. (무엇이다)

### ③ 목적어(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되는 말, 즉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성분.

예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무엇을) / 이슬이가 삼촌을 좋아한다. (누구를)

### ④ 보어(무엇이)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 말을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

예 얼음이 물이 되었다. / 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⑤ 관형어(어떤, ~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  
주로 체언을 꾸며 준다.

예 우리가 새 신발을 신었다. / 예쁜 꽃이 피었다. / 선생이  
가 선미의 동생이다.

⑥ 부사어(어떻게)

주로 서술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

예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 / 토끼가 강충강충 뛰어간다. / 나  
못있이 빨갈게 물들었다.

⑦ 독립어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성분. 부름, 감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

예 민수야, 지우개 좀 빌려 줘. / 앗,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 예, 지금 곧 갈게요.

※ 문장성분과 품사의 구분

집을 지을 때 벽과 천장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벽돌이 필요한데 이 벽돌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천장이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합니다. 벽돌, 나무,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들은 ‘품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품사들이 사용되어 만들어지는 벽, 천장, 마룻바닥 등은 ‘문장성분’입니다.

### ※ 문장성분의 종류





### 3) 기타 용어

#### ① 체언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② 용언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눈다.

#### ③ 본용언

문장의 주체를 주도적으로 서술하면서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

예 '나는 사과를 먹어 버렸다'의 '먹어', '나는 잠을 자고 싶다'의 '자고' 등

#### ④ 보조용언

본용언과 연결되어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예 '가지고 싶다'의 '싶다', '가게 되다'의 '되다' 등

⑤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 '예쁘다', '예쁘니', '예쁘고'에서 '예쁘-' 등

⑥ 어미

용언 및 서술격 조사(-이다, -다)가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예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에서 '-다', '-으며', '-고', '학생이다', '학생이며', '학생이고'에서 '-이다', '-이며', '-이고' 등

⑦ 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

예 '뉘개'의 '뉘-', '어른스럽다'의 '어른-' 등

⑧ 의존명사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 쓰이는 명사.

예 '것', '따름', '뿐', '데' 등

⑨ 접두사

어근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예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등

⑩ 접미사

어근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예 '선생님'의 '-님', '먹보'의 '-보', '지우개'의 '-개', '먹히다'의 '-히' 등

## 2. 띄어쓰기

1)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2) 조사

①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조사로 잘 인식하지 못해 띄어 쓰는 조사들이다.

밥은커녕 죽도 못 먹는다.

사고 싶다마는(=만) 돈이 없군.

얼음장같이 방바닥이 차갑다.

주인이 “많이 드세요”라고 권한다.

게으른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철수는 너하고 닮았다.

② 부사어와 형태가 같은 조사

조사 중에는 부사어와 형태가 같은 것이 있는데 의미에 따라 용법을 구별해야 한다. 조사로 쓰이면 붙여 쓰고 부사어로 쓰이면 띄어 쓴다.

· **밖에:**

조사 -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냄. 반드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라옴.

예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부사어 - ‘바깥에’라는 뜻.

명사 ‘밖’에 조사 ‘에’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함.

예 문 **밖에** 있으면 추우니 들어오시죠.

· **보다:**

조사 - 비교의 뜻이 있음.

예 기차**보다** 비행기가 빠르다.

부사어 - ‘한층 더’라는 뜻.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함.

예 너는 **보다**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③ 의존명사와 형태가 같은 조사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 단어가 조사로 쓰였는지, 의존명사로 쓰였는지 구분해야 한다.

· 만:

조사 -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씀.

예 난 여행**만** 좋아한다. /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의존명사 -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온 지 1년 **만**에 떠나갔다.

· 대로:

조사 -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씀.

예 법**대로** 해라. /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곳에 가자.

의존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시키는 **대로** 하겠다.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세요.

· 뿐:

조사 -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 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씀.

예 이 학교는 남자**뿐**이다. /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

└ **의존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다.

· **만큼:**

└ **조사** -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씀.

예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 / 나도 너**만큼** 친구가 많다.

└ **의존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다. /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잘 해야 한다.

### 3) 의존명사

① 의존명사는 그 앞말과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② 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

### · 데:

의존명사 - ‘곳,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지금 가는 **데**가 어디야? /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어미 - 뒤의 내용(전화가 왔다)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는 어미로 쓰인 것으로 붙여 씀.

예 집을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다.

### · 바:

의존명사 -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어미 - 뒤의 내용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할 때는 어미로 쓰인 것이므로 붙여 씀.

예 시험이 곧 실시되는**바(니)** 자리에 앉아 주세요.

* ‘바’ 뒤에 ‘가’, ‘를’과 같은 조사를 넣어 자연스러우면 의존



명사, ‘-니’, ‘-어서’와 같은 다른 어미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미로 볼 수 있음.

· **듯:**

의존명사 - ‘짐작이나 추측’,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그가 잘 아는 **듯** 말했다. (짐작이나 추측) / 잠을 잔 **듯** 만  
듯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

* ‘듯’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ㄴ/-는’이 있음.

어미 -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낼 때  
는 어미로 쓰인 것이므로 붙여 씀.

예 구름에 달 **기듯** 가는 나그네

· **지:**

의존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입사한 **지** 3년이 지났다.

어미 - 어미의 일부로 쓰이면 붙여 씀.

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그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 ③ 접미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

#### · 들:

의존명사 -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 한다.

접미사 -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씀.

예 강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 · 차:

의존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접미사 -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씀.

예 연수차 중국에 왔습니다.

#### · 씨:

의존명사 -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말할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씀.

예 홍길동 씨 / 김 씨가 어제 선물을 가져 왔어요.

└ 접미사 -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예 최씨 문중 / 그의 성은 남씨입니다.

#### 4) 보조용언

①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예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 잘 아는척한다.

② ‘-아/-어’ 뒤에 ‘서’가 붙어든 형식에서는 뒤의 단어가 보조용언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예 고기를 잡아(서) 본다.(○) / 잡아본다.(×)  
 사과를 깎아(서) 드린다.(○) / 깎아드린다.(×)

③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동사인 경우는 보조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 예 아는 체를 한다.(○) / 아는 체를한다.(×)  
 비가 올 듯도 하다.(○) / 올 듯도하다.(×)  
 값을 물어만 보고(○) / 물어만보고(×)  
 믿을 만은 하다.(○) / 믿을 만은하다.(×)  
 밀어내 버렸다.(○) / 밀어내버렸다.(×)  
 잡아매 둔다.(○) / 잡아매둔다.(×)  
 매달아 놓는다.(○) / 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 / 집어넣어둔다.(×)

④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의 보조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 예 기억해 둘 만하다. / 기억해둘 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 읽어볼 만하다.  
 도와 줄 법하다. / 도와줄 법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 되어가는 듯하다.

## 5) 단위, 수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예 한 개 / 차 한 대 / 금 서 돈 / 소 한 마리 / 옷 한 벌 /

#### 열 살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두시 삼십분 오초 / 제일과 / 삼학년 / 육층 / 2대대 /  
1446년 10월 9일 / 16동 502호 / 제1실습실 / 80원 / 10개  
/ 7미터

### ②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예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6) 고유명사, 전문용어

①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채영신 씨 / 홍길동 목사 / 최치원 선생 / 박동식 박사

②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예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

- ③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예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 7) 기타

- ①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예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사과, 배, 귤 등등

- ②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그때 그곳 / 좀더 큰것 / 이말 저말 / 한잎 두잎

### 3. 문장 부호

#### 1) 마침표(. )

- ①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예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 ②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예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 ③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예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 ④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예 1919. 3. 1. / 10. 1.~10. 12.

⑥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 운동 / 8.15 광복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

예 3·1 운동 / 8·15 광복

⑦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예 가. 인명 / ㄱ. 머리말

⑧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 2) 물음표(?)

①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예 점심 먹었어? /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②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예 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 ③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 ④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 /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⑤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예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 ⑥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 3) 느낌표(!)

- ①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예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 어머!

②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어, 벌써 끝났네. / 날씨가 참 좋군.

③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예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④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예 이게 누구야! / 내가 왜 나빠!

⑤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

예 네! / 네, 선생님!

#### 4) 쉼표(,)

①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②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 ③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예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 ④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⑤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예 5, 6세기 / 6, 7, 8개

- ⑥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 ⑦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⑧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⑨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예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 네, 지금 가겠습니다.

⑩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예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⑪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예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⑫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⑬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이리 오세요, 어머님. / 다시 보자, 한강수야.

- ⑭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 ⑮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이때는 심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예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 ⑯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심표가 들어 있을 때는 심표 대신 줄표를 쓴다.

예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 ⑰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 ⑱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예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⑮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14,134

⑯ ‘십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 5) 가운뎃점(·)

①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예 민수 · 영희, 선미 · 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②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 ·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십표를 쓸 수도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③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예 상 · 중 · 하위권 / 금 · 은 · 동메달

가운뎃점 대신 십표를 쓸 수 있다.

예 상, 중, 하위권 / 금, 은, 동메달

## 6) 쌍점( : )

- ①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 ②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 ③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 ④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예 65:60(65 대 60) /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 ⑤ 내포되는 종류를 들 때 쓴다.

예 문장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 ⑥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③과 ④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 7) 빗금( / )

①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먹이다/먹히다      남반구/북반구

②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예 100미터/초      1,000원/개

③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뀔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예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④ 빗금의 앞뒤는 ①과 ②에서는 붙여 쓰며, ③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①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 8) 큰따옴표( “ ” )

- ①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예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 ②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예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9) 작은따옴표( ‘ ’ )

- ①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 ②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예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③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 10) 소괄호( ( ) )

- ①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예 2014. 12. 19.(금) /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 ②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예 기호(嗜好), 자세(姿勢) /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 ③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 ④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예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 ⑤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의 수도는 ( )이다.

- ⑥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예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

로 표현된다.

## 11) 중괄호( { } )

- 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가 }

/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 ②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 12) 대괄호( [ ] )

- ①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예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 ②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예 나이[年歲] / 낱말[單語]

- ③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예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 ①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 ②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 ①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 ②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 15) 줄표(—)

- ①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 ②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 16) 붙임표( - )

- ①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예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 ②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예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 17) 물결표( ~ )

- ①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9월 15일~9월 25일 / 김정희(1786~1856)

- ②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예 9월 15일-9월 25일 / 김정희(1786-1856)

## 18) 드러냄표( · )와 밑줄( __ )

- ①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필요한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②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19) 숨김표(○, ×)

①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②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  
이다. /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 20) 빠짐표( □ )

- ①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大師爲法主□□賴之大□薦

- ②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예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 21) 줄임표( …… )

- ①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 ②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빨리 말해!”

“…….”

- ③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예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



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예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⑤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⑥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⑦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③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 4. 헛갈리는 표현들

① 설레임 → 설렘

② 예기 → 얘기

**예** 우리 얘기 좀 해.

③ 몇일 → 며칠 ('몇일'이라는 말은 없음.)

④ '데'는 직접 경험했을 때, '대'는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씀.

**예** 이걸 나만 아는 비밀인데... / 둘이 사귀대!

⑤ '웬'은 '웬지'에서만 쓰임.

'웬만하면'이라는 단어는 없음.

'왜인지'를 줄인 '웬지' 이외의 다른 단어는 모두 '웬'을 씀.

⑥ 수업에 늦어서 어떡해.

→ '어떡해'는 '어떻게 해'의 준말.

수업에 늦었는데 어떻게 할까.

→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어미 '-게'가 붙은 말.

⑦ 제가 할게요.

→ ‘할게요’로 써야 함.

어미 ‘-게’는 있지만 ‘-께’는 없음.

⑧ ‘에’는 방향을, ‘의’는 소유를 나타냄.

예 너에게 간다 / 나의 사랑

⑨ ‘돼’는 ‘되어’의 준말

→ ‘돼’와 ‘되’는 ‘해’와 ‘하’로 바꿔 보기.

‘해’가 자연스러우면 ‘돼’로, ‘하’가 자연스러우면 ‘되’로 씀.

예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안 해요’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안 돼요’로 씀.)

⑩ ‘담궜다’가 아니라 ‘담갔다’ / ‘잠궜다’가 아니라 ‘잠갔다’

예 김치를 담갔어. / 문을 잠갔어.

⑪ ‘뵈요’가 아니라 ‘뵈요’

‘뵈어요’의 준말이므로 ‘뵈요’가 맞음.

⑫ ‘바람’과 ‘바람’

‘바라다’는 원하다, ‘바래다’는 색이 변한다는 뜻

⑬ ‘예요’는 ‘이예요’를 줄인 형태

앞말의 마지막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는 ‘예요’, 자음일 경우에는 ‘이예요’

⑭ ‘맞추다’와 ‘맞히다’

비교하고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은 ‘맞추다’, 정답이나 과녁은 ‘맞히다’

⑮ ‘하던지 말던지’가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지’

⑯ ‘이따가’와 ‘있다가’

‘이따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있다가’는 장소를 나타낼 때

**예** 조금 이따가 보자. / 여기 좀 더 있다가 갈래.

⑰ 낳다 / 낫다 / 났다 / 나왔다

**예** 아기를 낳다. / A가 B보다 낫다. / 뽀루지가 났다. / 병이 나왔다.

⑱ ‘이’와 ‘히’가 구분이 안 되면 뒤에 ‘하다’를 붙여 보기

뒤에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히’, 말이 안 되면 ‘이’

예 정확히, 꼼꼼히, 곰곰이, 깊숙이

단, ‘깨끗이’는 제외,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가 맞음.

①9 ‘지그시’와 ‘지긋이’

예 지그시 쳐다봤다. / 연세가 지긋이 든 분

②0 ‘서’와 ‘씨’

‘서’는 자격일 때, ‘씨’는 수단일 때

예 엄마로서, 과제로씨는

②1 ‘대로’와 ‘데로’

‘대로’는 ‘~하는 즉시’, ‘데로’는 장소

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할게. / 자기들끼리만 좋은 데로  
여행 갔어.

②2 ‘금새’가 아니라 ‘금세’, ‘요새’가 아니라 ‘요새’

‘금세’는 ‘금시에’의 줄임말, ‘요새’는 ‘요사이’의 줄임말

## 5. 외래어 표기법

### 1) 표기의 기본 원칙

- ①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마켓(×)

- ② 파열음(ㄱ(g,k), ㄷ(d,t), ㅂ(b,p) 계열)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버스(○), 뽀스(×) / 코스타리카(○), 꼬스타리카(×)

### 2)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 ① 외국의 인명, 지명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래어 표기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나 고유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관용을 따른다.

예 Caesar 시저, Pacific Ocean 태평양

### 3)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①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1900년 전후) 과거인은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예 공자, 덩샤오핑(鄧小平)

②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예 장안, 난징(南京)

③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예 헤이안(平安), 토요토미 히데요시(伊藤博文)

④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예 도쿄, 동경 / 상하이, 상해 / 타이완, 대만

#### 4)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①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예 홍해, 갈릴리 해, 요단 강

② 바다는 ‘해’로 통일한다.

③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예 밧모 섬

④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예 황허 강, 쓰시마 섬

⑤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예 리오그란데 강, 몽블랑 산, 시에라마드레 산맥



## 제3장

### 교회 관련 교정 규칙

## 제3장

### 교회 관련 교정 규칙

#### 1. 성경인용

1) 성경 인용은 개역한글판을 기준으로 하되, 현행 맞춤법을 반영한다.

예 ~지니라(○) / ~찌니라(×), 일꾼(○) / 일군(×)

2) 본문과 따로 성경 구절 전체를 인용할 때는 위, 아래로 한 줄씩을 비우고 따옴표 없이 쓴다.

예 (빈 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빈 줄)

3) 본문 중에 성경 구절 전체를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를 사용하되, 장과 절을 표시하는 소괄호는 띄어쓰기 없이 곧바로 붙여 쓰도록 한다.

**예**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4) 본문 중에 성경 구절을 부분 인용할 때는 생략된 부분에 말줄임표(…)를 쓴다.

**예** 율법은 “…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요 8:17)라고 가르친다.

- 5) 본문 중에 성경 구절을 간접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쓴다.

**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분이시다(딤후 6:15).

- 6)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 “~라”로 끝나더라도 “~라”라고를 쓴다.

**예**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7) 연속되는 절 표시는 물결표(~) 또는 붙임표(-)를 사용하고 연속되지 않은 절 표시는 쉼표(.)를 사용한다.

**예** 신 8:14~15 / 신 8:14-15 / 신 8:14, 19

## 2. 띄어쓰기

1) 성경에 나오는 교회(특정 교회가 아닌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경우)는 띄어 쓴다.

예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2) 국내 교회의 명칭은 모두 붙여 쓴다.

예 서울중앙교회, 광주송정교회, 대전교회 등

3) 해외 교회는 국가명과 교회명을 띄어 쓴다.

예 캐나다 토론토교회, 필리핀 리가오교회 등

4) 교회당은 띄어 쓴다.

예 미국 뉴저지 교회당, 서울중앙 교회당, 광주 교회당 등

5)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예 기도해 주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 비가 올 성싶다. / 잘 아는 척한다.

6)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앞의 보조용언은 붙여 쓴다.

예 기억해둘 만하다. / 읽어볼 만하다. / 도와줄 법하다. / 되

어가는 듯하다.

7) 다음은 붙여 쓴다.

전도 집회 → 전도집회 / 성경 강연회 → 성경강연회 / 영  
생의 말씀사 → 영생의말씀사 / 생명의 빛 → 생명의빛  
(생명의말씀선교회 정기 간행물) / 갈릴리 수양관 → 갈  
릴리수양관 / 하계 수양회 → 하계수양회 / 문서 선교부  
→ 문서선교부 / 교회 학교 → 교회학교 / 담임 목사 →  
담임목사 / 형제 자매 → 형제자매

8) 다음과 같이 띄어 쓴다.

기도부탁 → 기도 부탁

기도부탁 드립니다. →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 어휘 선택

- 윗분 → 어르신    · 몽고 → 몽골
- 일요일 → 주일    · 일반 교회 → 다른 교회
- 주보 → 소식지    · 지방 교회 → 지역 교회
- 공주 갈릴리수양관 → 갈릴리수양관
- 이방인 → 구원받지 못한 사람



